

우리나라가 옴트던 그 시절

박 창 남*

가지마다 2010년의 봄이 옴트고 있다. 1968년 1월 이래 42년간 굳게 닫혀 있었던 북악(北岳)의 하늘길이 전면 개방되었다 하여 그 길을 혼자서 3시간 여에 걸쳐 천천히 탐방하면서 1960년대의 이런 일저런 일이 생각나서 몇 가지 적어 본다.

1960년의 4·19혁명에 이어 1961년에 5·16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일찍이 없었던 격동기를 맞이한다.

1962년 8월 미국에서 돌아와 2년 가까이 국내근무를 마치고 처음으로 개설되는 함부르크 총영사관(처음 2개월간은 영사관)으로 부임한 것이 1964년 7월이었으니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군사혁명 정부는 무엇보다도 수출제일주의로 무엇이든지 수출하여 우선 외화를 벌여보겠다는 것이 국정의 제일목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964년 10월 30일에 처음으로 수출 1억불을 달성하게 되어 그 후 오랫동안 ‘수출의 날’로 이 날을 기념했고, 지금은 ‘무역의 날’로 더욱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무역에 관해 별로 아는 것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일본에서 浜谷源藏 著 “入門貿易實務”(昭和29년 4월 25일 발행) 한 권을 一金 450円에 사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리하여 무역에 관한 지식을 조금은 알게 된다. 동경에서 홍콩, 로마를 거쳐 제네바에 도착하여 대표부(故진필식 공사와 조광제 서기관)를 방문하고 2일간 머문 후, 본 대사관으로 가서 2주일 가량 업무 파악과 업무 인계를 받았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경제외교 일원화(一元化)를 하기 위해 본(Bone) 대사관에 주재하던 경제기획원 파견관 2명과 상공부의 상무관, 조달청의 구매관을 모두 본국으로 소환하고 그 대신 함부르크 총영사관에서 그 많은 업무를 떠맡아 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무리한 업무개혁이었으나, 그래도 당분간은 본인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6개월이 지나서 조달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여 조달청에서 구

* 전주 가나대사

매관을 다시 보내 주어 한숨 놓게 된다.

당시 함부르크에는 72개국의 총영사관이 있어 뉴욕에 이어 세계 제2의 영사단이었으며, 영사단 단장은 Haiti 총영사관의 Henri Fouchard 총영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래 함부르크에는 구한말에 Mayer씨를 명예영사로 임명한 적이 있었으며, 70여 년이 지난 1958년에도 박동진 총영사에 박창남 부영사로 공관 신설을 하려고 했으나, 인사만 내정하고 예산관계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을 정말로 가게 되었으니 감회는 더욱 깊었다.

무엇보다도 서독을 포함하여 유럽에의 수출증대가 가장 중대한 과제였다. 우선 함부르크 상공회의소에 가서 수출입상사 명단을 얻어 일일이 방문키로 한다. 당시, 서독에서는 제조회사와 무역회사를 구분하여 제품을 무역회사에서 수출하면 7%의 커미션 혜택을 주어 수출증대를 권장하고 있었다. 800여 개의 조그마한 무역 상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우리 수출품의 견본(당시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영덕 계통조림, 수세미제품, 광목자루, 아이디알제 봉틀, 인삼주, 섬유제품 등)을 제시하고 우선 시험 수입이라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 중 거래 가능성이 있는 300여 개 상사의 파일을 만들고 시간나는대로 우리 상품 수입을 간청하기도 했다.

그 당시 동화통신에서 발행하는 주보에는 U.S. 100불 정도의 신용장 개설사 실까지도 보도될 정도였으니 우리 정부가 얼마나 수출에 애썼는가를 알 수 있다. 당시 한편으로는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화가 우리 경제재건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있어

서는 안 될 것이다.

총영사관의 한달 예산은 U.S. 800불 정도였으며, 직원은 본인을 비롯하여 구매관, 부영사, 현지직원 2명으로 총 5명이 전부이나 그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고 다양했다.

1964년 12월의 박정희 대통령 방독에 이어 1965년의 김생려씨가 이끄는 아리랑 예술단의 함부르크 Wesenbinder Hof 공연, 이효상 국회의장 일행 방문, 이창세 바둑3단의 바둑대회, 윤이상 작곡발표회 등 그야말로 해도 해도 돌봐야 할 일이 끝이 없었던 것 같다.

당시 함부르크에는 서울대학교 동기동창인 신일 박사와 태용운씨가 있었고 삼호(三護)상사의 지사가 있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의 교환 교수 김기령 박사도 있고 하여 봄철 교포야유회는 제법 재미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1966년 말에는 전 유럽 대륙에 거주하는 교포 약 10,000명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연말 선물로 보내는 김치강통 약 2만 개가 도착하여, 이를 매인당 2개씩 포장하여 발송한 일이 있었다. 포장도중 맛 본다고 강통 하나를 일하던 유학생이 몰래 먹어 한 통이 모자란다고 야단법석을 떤 생각도 새삼스럽다.

해마다 개최되는 ‘서백림산업박람회’ 관계 업무도 재미있는 추억이며, 특히 당시 동방정책으로 유명한 서백림 시장이며, 후일 서독총리가 된 Willy Brandt 시장이 우리나라 전화기 신제품을 들고 아주 좋다고 얘기하던 일이 새삼스럽다.

유럽을 방문하는 인사는 거의 다 서베를린과 함부르크를 들르게 되었으며, 특히 함부르크에는 Reeperbahn(St. Pauli)

이라는 유흥가가 유명하며, 5천 평방미터 되는 곳의 연간 수익이 U.S. 1억불이 넘어 2차대전 후 서독에서 가장 빨리 함부르크시를 재건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한다. 또한 이곳 한 곳에는 25개 국적에 800여 명의 여자가 있는 공창 구역이 있고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여 방문객에게는 큰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

대한해운공사에서 4척의 중고선 구입이 있었는데 그 제1호가 동명호였으며, 10,000톤이 조금 넘는 중고선이었는데 태극기를 달고 Elbe강 103km를 향해하는 동안 강하구인 북해까지 따라가면서 태극기를 흔들며 준 교포도 있었다.

또 함부르크에는 서독의 국방대학이 있어 국내 국방관계 국회의원이나 군 관계자의 방문도 많았고, 그러한 경우에 시

장 초청 만찬이 있는 경우에 좌석 배치관계로 더러는 문제가 있기도 했다.

각설하고 연간 무역고가 6,000억불을 훨씬 상회하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종합 5위에 오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세계 속에서의 위상과 지금까지 회상해 본 1960년대 함부르크 시절을 비교해 보면 천양지차가 난다.

그러나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다각도의 총력을 기울여 제대로 움트지 아니했다면 오늘날의 영광이 있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또 흘러 강산이 변하고 또 변한다 해도 제대로 움트고 싹트고 해야 영광된 꽃이 핀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고**